

#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0년 02월 제82호



발행처 :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 최행규

편집인 :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 233호

전 화 : 031-201-3252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35-173062 / 예금주: 차지원

Homepage : [www.karll.or.kr](http://www.karll.or.kr)

이메일 : [karll21@hanmail.net](mailto:karll21@hanmail.net)

## 차례

권두언 .....	3
회원논단 .....	5
신간안내 .....	7
학회지 발간 안내 .....	9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	10
회비납부 현황 .....	16

# 권두언

## 한·러 수교 30주년, ‘우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니’



최행규(경희대학교)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모를 통해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라는 기념 표어가 선정되었으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것이다. 다른 어느 해보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새삼 돌아보게 될 한 해이다.

러시아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와 국민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양국은 역사적으로 빈번한 외세의 침입을 겪어야 했으며 특히나 급격한 근대화와 서구화의 과정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린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뿌리 깊은 한(恨)의 정서와 러시아인의 가공할만한 인내심과 염세주의는 슬픈 역사에서 발원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외세와 강제에 의한 근대화와 서구화는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일찍이 뿌쉬킨은 러시아인들이 보여주었던 자국에 대한 증오의 마음과 외국에 대한 동경 의식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그대, 계몽의 힘으로 자신의 이성을 연마해  
그대는 그대의 본 모습을 보았네.  
그대는 외국 민족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이토록 지혜롭게 조국을 증오하였네.

뿌쉬킨의 시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대중에게 드리워져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사관의 그늘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지나친 비약이 될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자국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마치 자신의 영민함의 증거이자 자존심의 근거인 양, 결국은 자기비하가 될 증오의 말들을 스스로 없이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러시아인의 최대요구주의(максимализм)는 우리 문화에서의 원리주의적 극단성과 강도(強度)적 측면에서 유사하며 ‘빨리빨리’가 표방하는 속도지상주의 경향과 정도(程度)적 측면에서 서로 닮았다.

한편 전쟁, 혁명과 같은 격변의 역사로 인해 수시로 반복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습득되었을 것이 분명한 끈끈한 공동체주의 그리고 찾아온 손님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는 풍습은 두 나라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공통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서로 닮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다. 무엇보다 냉전 질서가 해체된 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와 자국중심주의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해온 것은 러시아학 연구자로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러시아학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와 상호 이익을 위해,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동안 가져온 자긍심에 빛을 더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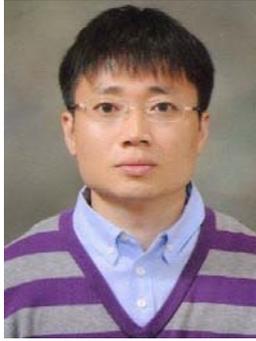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우리 학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회는 한국과 러시아 간 수교의 역사를 함께하며 양국 학자 사이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었음을 자부한다. 교육과 연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대학과 학문 생태계의 상황에서도 우리 학회는 양국 연구자 간의 신뢰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양국 연구자 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교류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침 우리 학회는 러시아 관련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올 가을에 주관하게 되었다.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난 30년 동안 전개해 온 상호 학문적 교류의 성과를 확인하고, 희망찬 미래의 긴밀한 학문적 소통을 위해 러시아학 전공자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교류의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학 제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머리 숙여 부탁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식 우정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러시아식 우정은 꽤나 유별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의 우정은 새벽 4시에 전화도 없이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일어나 차를 끓이는 그런 우정이다. 또한 러시아 친구들 사이에는 내 것과 네 것이 따로 없다. 특히 냉장고 속에 있는 것들은, 이것이 가능해야 드루그(друг)다. 아니면 그냥 즈나꼬묘이(знакомый)에 불과하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우정도 이리했으면 싶다. 우리의 러시아 친구들과의 우정도 이런 것이면 좋겠다. 적어도 이 땅에서 외로운 학문을 함께 하는 벗으로서의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의 우정도 이런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 회원논단



# 모스크바에서의 열흘. 소소한 단상들

김태욱(충북대학교)

2020년 2월. 인천공항 출국장은 비수기 지방 공항의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한산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여섯 살 딸아이의 입에서 코로나, 신종 코로나라는 말이 자연스레 튀어나올 정도로 왕관 모양의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번호로 호명되는 환자의 수가 늘수록, 그 번호가 거쳐 간 시설물들이 내 주거지와 일터 가까이 있을수록, 주변국에서 들려오는 사망자 수가 늘어 갈수록 육체도 정신도 그 운신의 폭을 좁혀만 간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그렇게 코로나바이러스다.

모스크바를 향하는 비행기 안은 적막하다. 승무원도 나도 옆자리 승객들도 대부분 흰 색,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경계 속에서 비행기는 그렇게 아홉 시간을 날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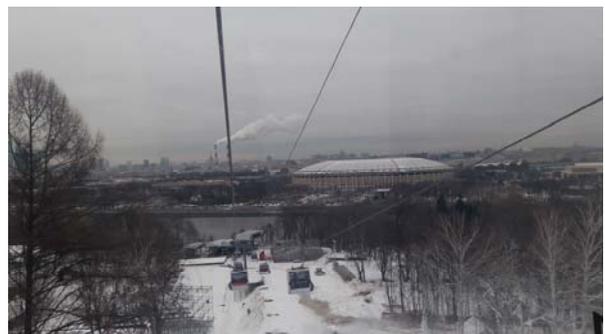
모스크바 입국장에서는 서둘러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우리와는 달리 우한 지역에서 온 시민들을 저 멀리 시베리아 튜멘 지역에 넣고 집단 관리하는 러시아로서는 마스크를 하고 그들의 수도에 나타난 동양인은 오히려 그 불안을 조장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세레메티예보 공항은 새롭게 푸시킨의 이름을 달고 운영되고 있다. 위대한 러시아의 시인은 투플레프와 멘델레예프를 제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뾰드득 뾰드득 소리를 내어가며 흰 옷 입은 자작나무 오솔길을 따라 열심히 참새 언덕을 오른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몇 사람을 빼고는 고요하기만 한 휴일 이른 아침 러시아 겨울 숲은 옷깃을 여미게 하면서도 상념의 끈을 놓

을 수 없게 하는, 그러면서도 나무 가지 끝이 닿는 하늘을 한번쯤 올려다보며 가벼운 숨결을 내쉬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작은 바람에 실려 공중으로 날아 흩어지는 눈보라를 만들어 낼 뿐 모든 게 얼어붙은 듯한 그 숲은 거꾸로 늘 내게 삶에 대한 의미와 희열을 주는 존재였다.

참새언덕에도 관광객을 유혹하던 기념품 판매장이 있던 곳에 크지 않은 아이스링크가 들어섰다. 스키점프대 옆에는 모스크바 강변을 가로질러 루즈니키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등장했다. 한국이라면 타보지도 않았을 케이블카지만 여기서만큼은 '왠지 타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 살얼음이 언 모스크바 강의 상공을 가로질러 하강하는 기분은 여름철 유람선을 타고 모스크바 강을 따라 내려가던 것과는 그 느낌부터가 사뭇 다르다. 낭만과 함께 뭔가 더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진하다. 제설작업 중인 루즈니키를 뒤로하고 노보데비치 공동묘지로 향했다. 발길이 수도원으로 향한 건지 공동묘지로 먼저 향한 건지는 알 수 없다. 이곳에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과 산 자들이 머무는 곳은 담 하나의 차이니까.



<참새언덕의 케이블카>



<노보데비치 공동묘지>

노보데비치 수도원도 그렇지만 공동묘지는 박사과정일 때 종종 찾던 곳 중 하나였다. 체홉, 고골, 불가코프, 마야콥스키, 알렉세이 톨스토이 등의 작가를 비롯하여 레비탄, 세로프 등의 많은 예술가들의 무덤이 있는 이곳은 문학을 하는 내가 반드시 응당 찾아야 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10년 전(너무 오래전 이야기다)에는 묘지의 입장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300루블의 입장료에 가이드도 있다. 뭔가 역시 상업적이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또 한편이다. 익숙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거절하고 망자들의 비 사이사이를 가로지른다. 추위가 한창인데 한 때의 무리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묘지의 여기저기를 누비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연신 들이댄다. 비행기가 출발한 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을 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부심한데, 일요일 부활의 아침 이곳에선 남녀노소가 누군가의 죽음과 그 흔적 찾기에 부심하며 그것을 찾아낼 때마다 만족한 미소를 짓고 그 순간을 기억하려고 한창이다. 죽음이라는 대상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고 없음의 차이인가. 여하튼 조금은 아이러니다. 2007년 장례식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은 러시아 국기 형상이 한 눈에 들어오는 보리스 옐친의 커다란 묘비보다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작은 십자가 묘비 앞에 서서 그를 더 오래 추모하려 한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까. 망자는 말이 없다.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역시 혼자 찾기에 좋은 곳이다. 그림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나는 레비탄이 참 좋다. 혹자는 '영원한 평화 위에'라고도 번역하지만, 그보다는 '영원한 안식 위로'가 그림(Над вечным покоем)을 설명하기에 더 좋은 것 같

다. 화폭의 절반 이상을 하늘이 차지하고 있는 블라디미르카(Владимирка)도 한참동안 나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하나는 강 같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그림 앞 이곳에, 다른 하나는 지평선이 끝나는 아련한 저곳에 교회당이 자리하고 있다. 노보데비치의 잘 정비된 공동묘지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시골 변두리의 버려진 듯한 오래된 공동묘지, 죄수의 시베리아 유형길이기도 했으며, 누군가가 걸었을 시작과 종착, 혹은 여정의 끝없음을 알리는 비포장 길. 레비탄은 시적인 러시아의 자연에 영성을 부여했다. 보는 이를 한없이 평안케 하는 그의 그림은 언제나 깊은 상념과 고민에 날 빠트린다.

안덱스 본사 근처에 있는 하모브니키 지역 톨스토이 저택-박물관, 바깥에 눈보라가 인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소피야 안드레예브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거주했던 방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정말 잘 살았구나. 이곳에서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부활』 등의 작품이 탄생했다. 2층 널따란 그의 거실에 사모바르가 끓고, 스크라빈,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샬라핀, 부닌, 고리키, 오스트롭스키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과거의 주인이 없는 그곳 정원에는 눈과 고요만 가득하다.

2013년 귀국 후 그동안 몇 차례 러시아를 찾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박사과정의 학생도, 치열한 직장인도 아닌 방관자, 여행객의 모습으로 있었기에 이번 열흘간의 모스크바 체류는 그렇게 편하고 아늑했던가. 티무르 베크맘베토프의 『Ночной дозор』가 연상되었던 2006년 12월의 음울했던 모스크바와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아니면 그때의 나만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귀국 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푸시킨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KF94 마스크를 꺼내 그 양 끝을 질끈 조였다. До свидания, Москва!

# 신간소개

## 공통의 장소

러시아, 일상의 신화들



스베틀라나 보임 지음 | 김민아 옮김



그린비

## 공통의 장소: 러시아, 일상의 신화들

스베틀라나 보임(지은이)

김민아(옮긴이)

그린비

2019년 8월26일, 25,000원

ISBN : 9788976825674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알렉세이 유르차크 지음 | 김수환 옮김



199쪽 172 문학과지성사

##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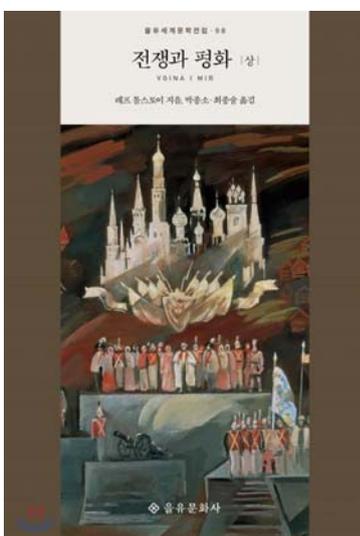
알렉세이 유르차크(지은이)

김수환(옮긴이)

문학과지성사

2019년 9월30일, 32,000원

ISBN : 9788932035758



◆ 을유문화사

## 전쟁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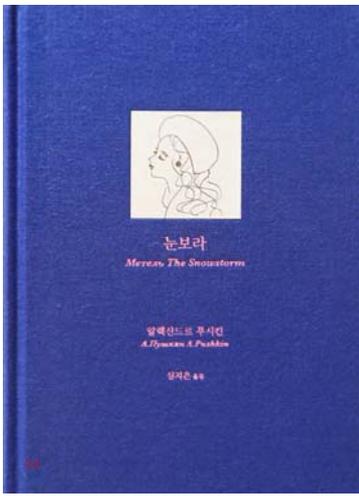
레프 톨스토이(지은이)

박종소, 최종술(옮긴이)

을유문화사

2019년 12월15일, 권 20,000원

ISBN : 9788932404806



## 눈보라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지은이)

심지은(옮긴이)

녹색광선

2019 12월23일, 17,500원

ISBN : 979119655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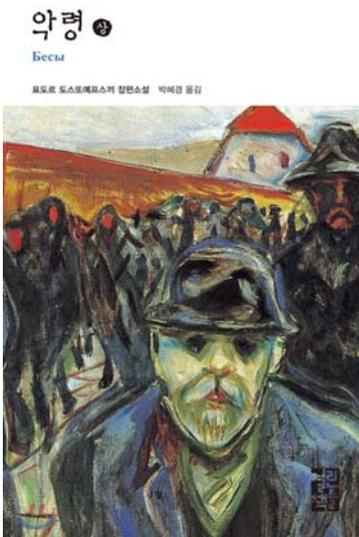
## 프롬나드 인 러시아

김은희(지은이)

이담북스

2019년 12월27일, 18,000원

ISBN : 9788926897553



## 악령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지은이)

박혜경(옮긴이)

열린책들

2020년 1월30일, 권 11,800원

ISBN : 9788932920115

## 학회지 발간안내

-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각권 제1호는 3월 30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권 제1호는 2월 20일, 제2호는 5월 20일, 제3호는 8월 20일, 제4호는 11월 20일입니다.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를 통한 논문 투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JAMS에 회원 가입을 하여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료를 학회 계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논문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 확정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전임으로, 연구재단 지원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논문투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시오.

- 1)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700자 이내)과 맨 뒤에 본문과 다른 언어로 된 요약문 첨부
- 2) 주제어를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첨부
- 3)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4) 논문의 영문제목 및 투고자의 영문 이름표기

\*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5. 작성요령

- 5.0. 논문제목: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를 저자명 중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챕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 (고딕체)

- 챕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 말’ 혹은 ‘나가는 말’ 등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음

- 챕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 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움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1)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2) 루이스 멍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 3)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 4)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 5)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 6) 김종대, *op cit.*, p. 29.
- 7) *Ibid.*, p. 87.
- 8) David Dordwell, *op cit.*, p. 39.
- 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 10)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 1)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 2)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 3) D. N. Shali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4)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 5) 김학준, *op cit.*, p. 209.
- 6) *Ibid.*, p. 208.
- 7) Irina Reyfman, *op cit.*, p. 78.
- 8) *Ibid.*
- 9) D. N. Shalin (ed), *op cit.*, p. 100.
- 1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p. 쪽수.

- 1)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p. 25.
- 2) John Sulliva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pp. 56–58.

- 3) И. М. Денисова,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но 3 (2003), сс. 56–57.

**[그 외 문헌]**

- 1)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2)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3)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4)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5.8. 러시아 키릴문자의 영문자 표기: 권장하지는 않음

5.9. 참고문헌 목록 작성

각주를 지양하고 본문에(한노회, 1998: 116–117)로 표기할 경우나 각주로 한노회, 『한국노어노문학 30년 기념논문집』 (서울, 1998), pp. 116–117로 표기할 때나 공히 작성을 권장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순서는 국문, 노문, 영문 기타 외국어 순서

[단행본] 저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기재하지 않음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멈퍼드, 루이스.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Соколова, В. К.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Николаев, Д.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Dordwell, David.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Виноградова, Л. Н.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Reyfan, Irina.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halin, D. 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 7. 제출형식

'아래아 한글'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 8. 제출마감일: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논문통과 후 논문 게재료를 학회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10-235-173062 (예금주: 차지원)

※ 심사비, 게재료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660-958316 (예금주: 차지원)

※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는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시고, 송금인과 입금내역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금인(연회비), 송금인(심사료), 송금인(게재료)]

## 나. 논문심사규정

### 1.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심사원칙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3. 심사판정

####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회비납부 현황

## ▶ 평생회비 납부자

고 일, 곽태석, 강덕수, 강명수, 강홍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최행규,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강수경(3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 2019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길윤미, 김나영, 이수진, 김알레이샤, 남대현, 어건주, 이다경, 이상철, 이성민, 이수현, 이훈석, 한현희, 홍선희, 을가 무란, 이남경, 허선화, 이규영

## ▶ 2020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이승억, 한현희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